



# 멍멍이·냥이 한달에 1회 예방약 적용 필요



## 모기,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 곤충!

찌는 듯한 더위와 높은 습도에 지쳐가는 계절, 여름이 한창이다. 이러한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청객이 있다. 곳곳에서 앵앵거리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녀석, 바로 '모기'다. 모기는 단순히 흡혈을 할 뿐 아니라 흡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균과 질병 원인체들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곤충이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기가 동물에게 옮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심장사상충 감염증'이다.

고양이도 심장사상충 예방 필수 선택  
개에 비해 감염률 낮지만 가능성 있어  
감염고양이 3마리 중 1마리 실내생활  
제주는 계절 관계없이 연중 예방 권장

심장사상충 감염증은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와 고양이 등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개와 고양이를 흡혈하게 되면, 동물의 혈관 속으로 유충이 들어가게 된다. 이 유충은 몸 속의 혈관에서 양분을 흡수해 성충으로 자라게 되며, 다 자란 성충은 동물의 심장과 폐 혈관 등에 자리를 잡게 된다. 자리 잡은 성충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장기의 정상 기능을 감소시켜 다양한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감염이 심해지는 경우 심장과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동물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심장사상충 감염증을 1개월에 1회의 예방약 사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양이 진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필자의 경험 상, 고양이 보호자들이 '고양이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된다. 이에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고양이는 개와는 달리 심장 사상충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A.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보 중의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개에 비해 심장사상충 감염률이 낮을 뿐이지, 감염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개와 동일하게 1개월에 1회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Q. 우리집 고양이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만 지냅니다. 그런데도 심장사상충 예방이 필요한가요?

A. 반려 고양이의 특성 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사상충 감염증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므로 실내 생활을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통계에 의하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고양이 3마리 중 1마리는 실내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생활만 하는 경우도 심장사상충 예방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Q. 고양이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A.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감염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체중감소 등 전반적으로 개와 유사하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심장사상충의 정상 숙주가 아니어서 감염 시 더욱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별 다른 징후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인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심장사상충 예방은 꼭 1개월마다 1번씩 해주어야 하나요? 모기가 있는 여름철에만 해도 괜찮을까요?

A.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방약이 1회 적용 시 효과가 약 1개월 정도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1개월 1회 예방약을 적용해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뿐 아니라 봄, 가을에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에 제주와 같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예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Q. 개와 고양이 이외에 다른 동물(특수동물)도 심장사상충 예방이 필요한가요?

A. 개와 고양이 이외의 반려동물 중에서는 페럿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페럿의 경우에도 개,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1개월 1회 심장사상충 예방약 적용이 필요합니다.

<김윤기·제주키움동물병원장>

## 영화觀

### 맛있는 인생

작금의 텔레비전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십여 편 방송 중이고 우리가 취미이고 맛집 탐방이 특기인 이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시대가 탄생시킨 스타인 백종원이나 주방에서 스튜디오로 활동 반경을 넓힌 셰프들의 활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맛있는 한끼가 주는 확실한 즐거움,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자본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비단 입만 즐거운 게 아니다.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는 사진으로 찍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기를 끌게 된다.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영화 속에서 발견한 음식들은 다양한 의미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가끔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이 등장한 영화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될 정도로 영화 속 음식은 힘이 세다. 지난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두 편의 작품엔 모두 시그니처 푸드가 존재한다. 먼저 정체를 위장한 경찰들의 수사물 '극한직업'은 수원 갈비맛 양념 치킨을 내놓았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화 속에서 대단한 활약을 해낸 이 닭은 실제 수원 통닭 거리를 인파로 붐비게 만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공을 세웠으니 정말 대단한 닭이다.

또 다른 작품인 '기생충'은 모두가 다 아는 짜장 라면 위에 한 우 채끝살을 얹으며 전세계 많은 관객들의 군침을 돌게 만들었다. 이 세계 각국의 유튜브들이 앞다투어 레시피를 업로드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의 한 극장에서는 직접 짜파구리를 만들어 메뉴로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제조사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호자 상품 노릇을 톡톡하게 해냈다고 한다. 서민들의 음식이라는 양념통닭과 짜장라면은 많은 대중들이 아는 맛이다. 익숙한 아이템인 동시에 구매도 조리도 비교적 손쉬운 품목이기도 한 것이다. 영화 속 음식들은 이 익숙



영화 '기생충'에서 채끝살은 얹은 짜장라면을 먹고 있는 채원교.

함에 신선한 한 가지를 더하면서 관객들과 식도락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모두가 아는 맛 위에 모르는 맛, 궁극한 맛을 더한 것이다. 갈비인가 치킨인가를 궁극하게 만드는 양념 소스와 라면에 감히 넣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고가의 채끝살을 더해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한 이 영화들은 영화적 성과와는 별개로 오래 기억될 맛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영화들이 자신만의 시그니처 푸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관객들의 오랜 추억이 된다.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봄날'은 '간다'의 라면과 배우 하정우를 먹방의 고수로 만든 '황해'의 구운 김, 영화와 캐릭터의 쓸쓸한 정서를 배로 높인 '무뢰한'의 해장국과 소주가 차례로 영화의 장면들과 함께 떠오른다. 또한 '죽구왕'의 커피 우유와 '소공녀'의 위스키 한 잔도 영화 속 장면들을 마주했던 그 감정 그대로 떠올라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든다. 영화 속 음식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 전시된 음식들과는 좀 다르다.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먹고 마시던 감정이 보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좀 더 복합적인 정서를 지닌 맛인 것이다.

이 여름, 맛있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 속 음식을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 월남참전기념탑 명각에 앞서

국가의 명을 받아 이역만리에서 사선을 넘나들던 월남 참전 전우들의 공을 기리고자 2002년 사라봉 입구 6호 광장 옆에 "월남참전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념탑에 상당수의 참전자 명단을 새기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영원한 전우이기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아쉬움은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각에 빠진 명단을 추가해 새롭게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전 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가족께서 신청하여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접수 마감 일자 | 2020년 8월 15일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참전부대명, 계급, 연락처

### 접수처

- 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박우택 ☎ 064-724-5066
- 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 지 회장 현동엽 ☎ 064-722-1221
- 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지 회장 김동선 ☎ 064-763-5066
- 대한민국고엽제 제 주 지 부 사무국장(대) 고현숙 ☎ 064-757-2221

### 추진위원회

- 자문위원 : 안준부 한철용 김한주 서경림 김수현 고원찬  
신상현 허성부 변광은 고학유 이영자(유족회장)
- 부위원장 : 현동엽 김동선 강윤희 변종익 강인현 고용문 박우택
- 사무국장 : 고두승 ● 간사 : 강은영
- 추진위원 : 강시정 고순현 서정택 송태화 이용철 이학범 문경만 박태호

월남참전 기념탑 명각 추진위원회 공동 추진위원장  
오승환 양형석 홍희철